

# 1. 2017 시사토론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침체, 그 끝은 어디인가?

•일시: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3:30-5:30

•장소: 서울대학교 220동 201호

## 사회

김기현(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

## 토론

권기수(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교수)

김영석(계명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현: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가 주최하는 제 5차 시사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사토론회가 2013년에 시작해서 매년 한 번 씩 개최돼 벌써 5차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1차는 칠레 대선, 2차는 브라질 대선, 3차는 미국과 쿠바관계 개선, 4차는 콜롬비아 평화협상, 이렇게 주로 정치적인 주제들을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경제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침체, 그 끝은 어디인가입니다. 일단 참석자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가나다순으로, 권기수 교수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을 지내시고 최근에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교수로 옮기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교수님이신데요, 역시 수출입은행 콜롬비아 사무소장을 지내시고 최근에 계명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학과 교수로 옮기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명실상부 우리 한국의 중남미경제 최고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재밌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세 파트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중남미 경제의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요, 두 번째는 중남미경제가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지, 이런 점들을 한번 논의해보고, 세 번째는 각 국가별로 핵심 쟁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 ■ 최근 중남미 경제의 전반적 상황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최근 중남미 경제의 성장률은 어떠한가?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회복이 느린 이유는 무엇인가?

김기현: 첫 번째 주제는 중남미의 최근 경제상황과 그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인데요. 우선 중남미가 최근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대한 만큼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성장률에 초점을 맞추어서 최근 중남미 경제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교수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석: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남미 경제는 최근에 나쁘죠. 2015, 16년에 제일 나뻐서 사실상 제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2017년 들어서가 문제인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 회복기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보여주는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은 맞고 내년도 전망까지 같이 이야기하면 내년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MF 자료 가지고 지표로 이야기 하면 2015년 중남미 경제가 0.1% 성장한 것으로 나오구요 2016년이 -0.9%, 올해 전망치가 1.2% 내년이 1.9%입니다. 큰 경기순환 주기 상에서 중남미 경제가 어디쯤에 있나를 보고 싶은데요. 너무 길게 가면 죄송하지만 길게 가보면 1980년대에 외채위기 겪었고, 90년대 들어서 회복세로 들어섰는데, 98년부터 2002년까지 대개들 잃어버린 5년이라고 하잖아요? 8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좀 안 좋았구요. 2002년부터 사실 거의 역사적으로 유래

가 없는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왔고 그때부터 2013년까지 무지 좋았고요. 더 이상 좋을 수 없었던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2014년 하반기부터 중남미 경제가 하락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2015,16년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왔었던 거고, 굉장히 좋았던 시기에 맞춰서 이야기 하면 가장 큰 원인은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었고 그 슈퍼 사이클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또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 저금리 상황, 선진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의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고요. 2014년부터는 다 바뀝니다. 원자재는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2014년 8월에 유가가 배럴당 108불 하던 것이 2014년 12월 말에 딱 반 토막 납니다. 54불로. 2015년 1월 초에 54불이었던 유가가 당시 연 초 예상하기로는 연말에 다시 회복해서 80불 될 거라고 했는데, 웬걸요. 40불 밑까지 떨어졌고요. 2016년 초에는 30불까지 떨어졌고요. 한 30불 떨어졌던 게 16년 말에 그나마 다시 튜해서 40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2017년 11월 60불 돌파했거든요. 완연하게 원자재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을 때 중남미 경제가 나뻐던 거고 지금 다시 가격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보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게 2015년 말인데,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브라질은 거꾸로 그 시기에 금리를 대폭 인상합니다. 기준 금리가 한 7%에서 14%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당시 저금리의 혜택을 중남미

가 누릴 여지가 있었는데, 중남미 개별국가 사정에 의해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금리인상이 경기 침체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지난 2년간 굉장히 나빴던 거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림 상 언제가 저점이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2016년 4분기 정도가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에는 확실히 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기현: 예 좋습니다. 저점을 찍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회복의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 같은데 김형주 박사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형주: 예 지금 이제 김영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남미가 전 세계에 비해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회복도 더딥니다.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IMF 올해, 내년 세계경제 전망 수치를 보면 동남아 국가들, 아세안 10개국 중 상위 5개국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 5% 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남미는 2%에 못 미치는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중남미가 기록하고 있는 1%대의 성장률은 선진국들이 경험하는 수치거든요. 선진국처럼 경제가 이미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분모가 커진 상태에서는 낮은 성장률이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중남미는 경제발전 단계로 보면 오히려 동남아에 더 가까운데 성장률은 선진국처럼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현상적으로는 그게 문제구요. 그런데 이 숫자만을 놓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

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사이클을 타는데 모든 나라가 사이클을 똑같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이클의 시발점에 있는 나라가 있고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나 산업구조에 따라서 위치들이 조금씩 달라 집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이 돈을 풀어서, 경기부양을 해서 내수를 살리기 시작하면 선진국이 먼저 수요가 살아날 거고요, 선진국에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는 한국이나 중국 동남아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 처음에는 이 나라들이 경제가 완전히 좋아질 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고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재고를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만 경제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시설투자도 늘리고,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의 혜택을 받는 것이 중남미 같은 자원 중심 국가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경기회복 사이클에서 좀 늦을 수밖에 없고, 중남미가 동남아에 비해 늦어진 것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중남미 국가들의 큰 맹점입니다. 경기 회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란 확신이 들면, 중남미도 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이전에, 중남미가 기록했던 굉장히 높은 성장률은, 그 앞부분에 선진국-중국으로 이어지는 경기회복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가 그러다 선진국이 다시 주춤하거나 아니면 그 앞단에서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거나 해버리면 중남미는 훨씬 더 빨리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한 채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흔히 채찍이론이라고 하는데, 채찍질을 탁 하면 손목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힘이 전달되어서

마지막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중남미는 어떻게 보면 채찍의 상당히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운이 전달되는 것도 늦고, 대신 좀 사그라지는 것도 빠르고, 물론 맨 끝에 있을만한 나라들, 원조를 받아서 커가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중남미의 산업구조는 그런 특징, 전 세계 가치사슬에서의 위치,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네. 권기수 교수님?

권기수: 저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남미가 이머징 마켓이나 디벨로핑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다른 디벨로핑, 이머징 마켓과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이나 디벨로핑 마켓이 평균적으로 성장을 해줘야 하는 수치는 6% 정도, 최근 매킨지에서 중남미와 다른 신흥시장을 비교해서 분석을 했는데 2000-2015 사이에 디벨로핑 마켓의 평균 성장률이 5.6%를 찍었더라고요. 중남미는 2.9%, 선진국은 1.6%를 찍었는데 기본적으로 중남미가 개도국의 절반 정도를 성장했고, 그 시점을 2003년, 1차 상품 수출 호황을 시작으로 해서 끝나는 시기 2012년으로 끊으면 4%대, 5%대 많이 해요. 중남미 경제 특성을 보면 이머징 마켓 보다는 디벨롭드 마켓, 올드 마켓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도시화율을 비춰볼 때, 전 세계 도시화율의 평균이 50%를 넘어가고 인도, 한창 커가는 나라가 30%대고, 중국도 한 50%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대

부분 중남미 국가들은 80%대. 이게 중남미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자 앞으로 중남미의 비교우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합니다. 대표적으로 도시화율이라든지 최근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인구. 인구증가율이 신흥시장의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 중 하나인데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어느 정도 인구 정점을 찍고 그 동안 2000년 대 1차 산품 붐만 가지고 중남미 경제성장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증가 가지고도 고용시장에 인구가 투입되는 노동투입 가지고 설명하는 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이 지금 일정정도 끝나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흥시장을 생각하면 젊은 층의, 중남미가 젊은 층의 인구가 많기는 한데, 다른 데에 비해서 고령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경우 65세 인구의 비중이 7%가 넘어가면 고령화라고 이야기 합니다. 14%는 고령국가, 20%는 초고령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브라질의 경우 7%가 넘어가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중남미=이머징 마켓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개도국보다 훨씬 먼저 자본주의에 편입이 되어서, 보통 신흥시장이라 이야기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2차 대전 이후 독립하면서 발전을 준비하던 시기. 그러나 중남미는 수입대체산업화가 30년대, 40년대, 50, 60, 70년대까지 사실은, 외채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중남미가 지금 신흥시장이 걸었던 대표적인 길을 걸었던, 대표적으로 브라질이나 멕시코가 그런 길을 걸었기 때문에, 다른 개도국,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그런 길을 먼저 걸었고, 경제

성장에 바탕이 되는 엔진-인구증가나 도시화율-이 소진된 상태  
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과 같이 볼 때는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염  
두에 두고 중남미 국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최  
근 중남미 국가들을 보면 제가 80년대 잃어버린 10년 말씀하셨고,  
98-2002 잃어버린 5년이라고 하는데 저도 금년까지 찍을지 전년까  
지 찍을지 모르겠지만 2012년-2017 사이가 또 다른 잃어버린 5년  
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데 모멘텀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나 하  
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중남미를 신흥시장으로 본다면 최소한 5-6% 성장률이 나와 줘야  
실업률도 줄고 모든 상황이 좋은데 지금 중남미의 내년도 성장률  
을 보면 회복단계라고 말하는데 2%미만이란 말이죠? 1%대. 동남  
아는 5% 정도까지 나와 주는데, 지금 전반적 상황을 보면 나쁜 편  
은 아니거든요? 미국과 중국 경기도 나쁘지 않고 원자재 가격도 최  
근에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도 좌파에서 우파로 바  
뀌어 기대감도 높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은데도 1% 밖에 예상  
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로 짚어주긴 하셨는데,  
거시경제요인, 경상수지 적자랄까, 재정수지 적자랄까, 인플레이  
션, 이자율 이런 거시 경제적 지표상으로 원인을 살펴볼 수는 없을  
까요?

**김영석:**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 보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경기가 호황이나 불황이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항

상 잠재성장률이잖아요? 잠재성장률이라는 걸 기준으로 그보다 낮으면 불황이고 높으면 호황이라고 하는데,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지속할 순 없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중남미 잠재성장률이 몇 %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전에, 세계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어떻게 될까? 이게 대충 3.7% 얘기하거든요. 내년도 세계경제 잠재성장률 예상치가 3.7%인데 선진국들은 1%미만도 있고 1% 내외 수준이고 우리나라가 3%정도 된다고 하고요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고. 중남미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70억 인구, 전 세계 GDP 70조 달러, 숫자 약간 틀립니다. 그 정도 생각하면 딱 평균입니다. 항상 보면 중남미는 평균이거든요. 전 세계 평균이니까 중남미 잠재성장률도 3.7%쯤 보면 대략 맞을 겁니다. 그 잠재성장률보다도 현재 낮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건 어렵고요. 아까 권기수 선생님이 얘기 잘 해주셨습니다. 중남미는 과거의 브라질의 기적이라던가, 멕시코의 기적,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고도 성장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지나갔습니다. 도시화율이 선진국보다 높아요. 80%가 넘고, 한 나라가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크게 보면 도시화와 산업화인데 도시화는 이미 끝났고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유희노동인력이 공장으로 가서 제조업 분야에 많이 투자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개도국이 성장하는 건데, 그런 과정의 동력을 중남미는 상실한 상태. 농촌에서 더 이주할 것도 없고, 인구 보너스도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2020년이면 중남미 인구보너스 끝난다고 하거든요. 그 때

부터는 사실 인구보너스가 아니라 인구부담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지금 1.1%정도 이야기하니까, 요점은 중남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흥시장, 동남아 수준의 성장률을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그건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현재 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지를 봐야합니다. 중남미에서 문제 있는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 성장률을 계산하면 잠재성장률 비슷하게 나옵니다. 브라질이 일단 예외예요. 남미의 절반을 차지하는 브라질이 마이너스 3.몇%를 2015, 2016 2년 연속 기록했거든요. 그게 중남미 전체의 경제성장률을 푹 떨어뜨리는 효과를 만들었고, 성장률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경제 규모가 꽤 큰 베네수엘라가 중남미 물가상승률 올려놨거든요. 브라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마크리 행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과거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공정 환율이 9페소에서 갑자기 15페소가 되어버리니까 조정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조정과정이 2년 걸렸고 이제 겨우 정상화 된 것 같은, 지난 2년이 그런 과정이었고, 예외적인 네 나라 때문에 중남미 성장률 수치가 낮게 나온 거지 네 나라 제외하고 보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주: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그 네 나라가 중남미 경제의 2/3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죠. 동남아도 5.2% 성장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각 나라들의 상황은 다 다르고 경제발전 단계도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필리핀은 중남미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잘 살다가 산업정책 잘못 쓰면서 자원과 사람에 의존하는 나라로 바뀌고 말았는데, 중남미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베트남 같은 나라처럼 쪽 솟아오르는, 이머징하는 신흥국이 아니라 위로 한 번 갔다가, 정책 실패에 의해 아래로 내려와서 레벨이 신흥국 레벨로 낮아져버린 국가라는 점에서 신흥국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어느 단계를 거쳐서 현재 상황에 와있는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남미도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상한 나라들 때문에 성장률이 왜곡되었지만 그 이상한 나라들이 중남미를 구성하고 있는 거고, 또 과거에는 그 나라들이, 예를 들면 브라질이 5%대 성장하고 이러면서 대신 또 중남미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주변 국가들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게 맞지만 여러 개의 합이 중남미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기현: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정도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이코노미스트지에 2017년, 2018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보면 아르헨티나는 오히려 한 2.7% 되고요, 브라질이 0.7% 칠레 1.3% 콜롬비아 1.7% 멕시코 2.2% 베네수엘라 -9.3% 페루 2.5%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동남아를 한번 보면, 홍콩 3.1% 인도 6.7% 인도네시아 5.2%

말레이시아 5.4% 파키스탄 5.7% 한국 2.8% 대만 2.2% 태국 3.5% 차이가 확실히 나요. 이게 왜 이럴까?

권기수: 저도 사실은 국가들을 보면, 예상외로 그동안 모범생이라고 하는 국가들 있죠? 칠레나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도 그렇고. 뒤에서 개별국가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등생이라는 국가들조차도 최근 퍼포먼스가 상당히 나쁜 경향이 있죠. 국가마다 고유의 스토리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변수도 중요한데 그에 더해 최근에 이런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특히 또 신뢰가 투자에 있어 중요한데, 미래에 대한 신뢰나 불확실성을 계산하는 게 필요한데 이 국가들이 대부분 부정부패 문제, 그리고 최근 보면 중남미 대통령들 지지율이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한자리를 기록하고 있고, 중남미 각국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나 정부 재정이 부족하니 민관협력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 특히 경기 부양에는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가 중요할 수 있는데, 대부분 깨끗했다던 국가들이 잘 아시는 오데브레쉬 이펙트나 그런 사태들에 전반적으로 아니면 바첼렛 정부 같은 경우도 거의 지지도가 바닥인데, 친사회적인 개혁에 대한 저항감이라든지 아들이나 며느리 부정부패에 연루된 거라든지, 페루도 그렇고 대부분 대통령들이 오데브레쉬 사건에 연루가 되어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안되면서 성장을 깎아먹는 요인이 있는 거 같아요. 페루 같은 경우 중남미 국가 중 신흥시장 다운 신흥

시장으로 2000년대 들어서 6% 대 성장률을 찍어줬던 대표적인 신흥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페루조차도 최근에 성장세가 크게 떨어진 요인들을 보면 쿠친스키 정부가 지도력이 없고 야당에서 정책 발목을 잡고 있고 대부분의 페루 대통령들이 부패에 연루되다보니 그런 요인도 있지 않나 합니다.

**김기현:** 좋은 말씀들이신데 어쨌든 중남미 경제는 원자재 가격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의 상승을 기대하지만 경상수지 적자를 보면 아직 그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전히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정을 투입해 성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재정적자문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따라서 원자재 팔아서도 안 되고 재정책대를 통해서 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회복을 위한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김영식:**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측정을 국내총생산으로 측정하니까, 생산이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을 수량 곱하기 가격으로 하잖아요? 이들이 늘면 경제가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좋았던 원자재 붐 시절에 생산이 늘었느냐 수량이 늘었느냐, 수량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중남미 경제가 한 게 없어요. 가만있는데 가격이 올라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생산은 똑같은데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결국은 생산을 많이 하면 돼요. 똑같은 생산요소투입을 가지고 더 많은 생산을 해야 되는, 결국은 생산성 증가거든요. 중남미 경제가 진짜 문제는 공급 측면에서의 생산성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크루그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동아시아 기적이라고 하는데 동아시아 경제성장은 팜으로 이른 성장이라고. 노동 투입 더 많이 하면, 1사람이 2사람 일을 하면 생산량 느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거는 당연한 거지 자랑할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산성 증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중남미는 사실은 전 세계 지역별로 비교해 놓으면 가장 생산성 증가가 낮은 지역이라고 항상 나와요.

**김기현:** 그 이야기는 근본 문제를 다룰 때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구요, 거시경제 지표, 경상수지나 재정 수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성장률과 관련해서.

**김영석:** 경상수지와도 약간 연관이 되는데, 1차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보니 과거에 중남미가 90년대에 열심히 노력해서 전체 상품에서 1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소위 말하는 수출상품다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원자재 붐이 일어나니까 다시 역전되어서 지금은 나라마다 다른데 중남미 평균을 내서, 수치는 틀릴 수도 있는데 한 60%가 넘어갈 겁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상품수출 줄 수밖에 없고 경상적자도 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남미 경상적자 이야기 할 때는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제일 큰 항목은 소득수지에요.

외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외국인 직접투자자들에게 배당 나가는 거. 그게 경상수지의 제일 큰 항목을 차지하는데 이걸 외채를 줄여나감으로써 외채 이자부담을 줄이는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 들어와 있는 누적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분야에서 경상적자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수지조차도 항상 흑자를 내다가 흑자 규모가 줄고 있고, 다시 요즘 또 흑자로 돌긴 했지만, 경상적자가 늘고 있는 건 문제이긴 한데 이걸 중남미 경제에는 현재에는 큰 이슈거리가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GDP의 3% 안될 겁니다. 3% 미만 정도의 경상적자는 한 나라 경제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중남미가 8천억 달러 정도의 외항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자가 과거와 같은 외환 위기나 외채위기로 연결될 위험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재정적자는 문제죠. 세수가 주니까. 경기가 나빠지니까 세수가 줄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조세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정수지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내경제성장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반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부채도 브라질 정도나 문제지 중남미 전체로 보면 양호합니다.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브라질이 GDP의 70%가 넘는다고 하지만 중남미 전체 평균은 제 기억에 40% 안돼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적자도 브라질이 문제인거죠. 에콰도르나 베네수엘라가 문제지 나머지 국가들의 재정수지 문제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현재 중남미의 저성장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역량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고요.

**김기현:** 자료에 보면 재정적자가 아르헨티나가 GDP의 -6.2%고 브라질이 -8%, 베네수엘라가 -19.5% 이 세 나라가 굉장히 심각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3% 이하라서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2008-9년 미국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 폭락했을 때 중남미 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게 재정적인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을 풀면서 성장률을 유지했었잖아요. 지금은 원자재가격 하락이 장기적으로 가다보니까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니까 더 이상 재정을 풀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이 현재 낮은 성장률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형주:**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적자, 재정적자도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걸 만들어내는 만성적인 적자. 세계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중남미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그것과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중남미 경제 부진의 원인을 구조적인 원인과 일시적인 요인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 요인들이 말씀하신 재정적자와 관련이 깊을 거 같은데 제일 큰 문제는 원자재 가격 하락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되는 이유를 보면 수

요가 살아나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주로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라든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칠레 광산의 노후화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작년 말부터 중국 수요가 늘면서 조금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즉 공급이 줄어들며 가격이 오른 측면이 훨씬 큼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김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DP라는 것이 물량 곱하기 가격인데 가격이 올라도 공급 자체가 줄어들다보면 실제 GDP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남미 국가들의 상당수는 재정을 원자재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거기서 생기는 부가가치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다보니까 반면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면 고용보조나 이런 지출은 늘어나야 하다 보니까 재정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세계경제 회복 전망이 불확실합니다. IMF도 내년 성장률 전망을 올해보다 조금 높게 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항상 조건을 붙이는 게,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과 회복이 소비 수요에 의한 회복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투자가 주도하는, 재고 감소에 의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투자 증가에 의한 것이라는 걸 계속 붙이고 있거든요. 마치 펌프에서 마중물을 붓고 그것이 실제 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하는 것처럼 세계경제가 완전히 회복세에 돌아섰다는 확신이 들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중남미도 재정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었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세계경제가 올해를 피크로 내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면 중남미의 어려움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김기현:** 원자재 가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중남미 경제는 그것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데. 최근 1년간 보니까 중남미 원자재 가격이 6.6% 상승했어요. 농산물은 3.1%, 광물은 27.3%, 석유는 3.6%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추세가 계속 살아날 건지 혹은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은 끝난 건지. 이것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권기수:** 저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를 변수들이 크지가 않아서 낙관적으로 보진 않고요. 최근에 대표적으로 구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유가도 사우디 변수나 베네수엘라 변수 이런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장기적 구조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변동이지 장기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한편 수요측면에서 볼 때 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중남미 경제에서 중요한 측면들이, GDP 구성 요소를 보면 민간소비, 정부지출, 기업 투자, 총고정자본 형성률, 그리고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순수출 이렇게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최근 가장 부진한 지표들이 정부지출입니다. 아직까지 기존 씬셈이가 있던 국가들이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1차 상품에 의존해서 상당히 많은 세수를 거둬들였고 그것을 통해 중도 좌파 정부들이 다양한 사회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호황이 다 끝나버려서 허리띠를 졸라야 하

는 상황이고, 씬씬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꽤 있는데, 그걸 최근에 정부들이, 우파 정부들이 충족을 해주려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허리띠만 졸라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거예요. 그러다보니 칠레도 그렇고 콜롬비아도 그렇고 콜롬비아는 최근에 부가가치세 인상을 했고 칠레는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된 요인 중 하나가 법인세 인상,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작년 말 20년 동안 재정지출을 동결하는, 전년도 물가 수준으로 해서 동결하는 긴축 재정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경제가 살아나거나 1차 상품 붐이 살아나지 않으면 긴축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동안 정부재정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그런 사업들이 또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되고 보니 지표들을 보면 재정지출이 마이너스고 투자도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보니 관망을 하고 있고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살아난다 하더라도 중남미 경제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같은 경우는 40%에 달하고 개도국 평균은 30%가 되어야 하는데 중남미 평균은 20%거든요. 그 수준에서 움직여봤자 한계가 있지만 투자가 살아나야 하는데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덩치가 가장 큰 민간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민간소비가 60% 이상이 되는데, 제가보기엔 중남미 국가들이 2000년대 들어서 소비주도의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소비주도 성장을 하면서 2008년 9년 되면서 정부들이 경기부양을 시작으로 소비여력

이 상당히 소진이 되어 있고 가계부채가 커지고 최근 실업률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구매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한계를 보이고 있고 바닥을 치고 살아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지표를 보다가 생각보다 놀란게 뭐냐면 브라질보다 멕시코의 민간소비 비중이 더 높더라고요.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68%예요. 멕시코 경제는 보통 수출 의존적이라 생각하는데 멕시코가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역이 멕시코 경제를 견인하는 측면보다는 민간 소비가 멕시코 경제를 견인하는 것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는 가계소비, 구매력, 임금수준이 낮아서 가계소비가 살아나지 않아서 멕시코 경제 이야기 할 때 대외부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내수 쪽이 훨씬 더 멕시코 경제에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지부진하다는 걸로 일정 정도 설명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기현:** 민간소비가 부진한 것도 결국 정부지출 여력이 부족하고 긴축정책과 다 연결이 되어있는 거죠?

**권기수:** 그렇죠. 2008-9년도는 정부가 재정여력이 있으니까, 또 민간은행 통해서 혹은 부가가치세 인하를 하며 소비를 진작시켰는데 미래소비를 당겨쓰는 소비고 그러다보니 소비자들이 과거만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점에 와있고 그런 것들이 2000년대 2012-13년 그때 전반적으로 경기부진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정부지출, 재정수지 이런 문제도 성장부진의 한 요인으로 지적해주셨는데, 원자재 가격도 중요한 변수겠죠. 김영석 교수님도 예상 한번 해주시죠. 원자재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영석: 아무도 모르죠. 먼 옛날 얘기하면 1997년 한국외환위기 터졌을 때 8월에 태국 바트화 위기 터졌을 때 대한민국 모든 연구기관들 정부 전부다 연말 환율 800원이라고 했는데 2천원 됐잖아요. 유가 전망도 못 맞추는 겁니다. 2015년도 전 세계 경제예측 기관들이 연말에 80불쯤 된다고 대개 예측했거든요. 30불 됐어요. 지금은 현재 시점으로 유가가 한 60불이니까. 그런데 다른 경제 기관들이 예측해 놓은 자료를 봤는데, KIEP도 LG경제연구원도 내년 유가 전망을 50불 내외 수준으로 가정하고 경제 전망들을 하셨더라고요. 현재는 60불이거든요. 지금 수준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오일 쇼크 감소가 이어지더라도 미국에 셰일가스 생산이 늘어나면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공급 측면에도 움직임이 있어서. 많은 기관들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현재 유가가 형성되어 있고 이게 그냥 가지 않을까요? 현장 가격으로 예상한다면 구리고 거의 파운드당 2불 밑 까지 떨어졌던 거로 기억하는데 지금 2.9불이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전체적으로는 광물 전체를 묶어서는 교역조건이 작년도 대비해서는 올해 중남미가 10% 이상 개선된 걸로 이야기하고, 내년에도 교역조건 개선 추세는 이어질 것 같은. 그게 아마 중남미 경제에는 크게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뭉뚱그려서 석유, 구리 이렇게 말할

재간은 없고요.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다면, 어디가 균형 가격인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반등했고 반등세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주:** 자원 가격을 전망할 때 요즘 제일 중요한 변수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 수요가 GDP 대비 자원 소비의 비율 변화를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중국만 계속 늘다가 이제 중국마저도 꺾어가기 시작했죠. 대기오염 문제도 있고, 신창타이, 중국 경제의 질적 변화도 도모하고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생산보다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위주의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서부 지역의 소비를 계속 장려하면서 성장을 하겠다고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자원수요는 오히려 줄어들고 중국에 대한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브라질이라든지 중남미 경제들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경제가 아마 앞으로 그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처럼 자원가격이 폭락하지 않더라도, 유가 100달러 시대가 다시 온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유가가 너무 떨어지면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셰일 가스는 최소한 40달러 50달러 이상의 유가를 전제하고 생산이 가능한 건데. 그래서 셰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면 유가는 5-60달러 대는 유지하지 않을까.

**김기현:** 2000년대 유가 황금기가 다시 오기는 힘들 거다. 최근에 상승하긴 했지만,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재정여력도 별로 없다. 이런 문제들이 경제회복 전망을 다소 어둡

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항상 중남미 경제를 끌어가는 두 축이 하나는 원자재, 원자재가 안 될 때는 외국자본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남미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 두 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원자재 수출이 힘들면 외국자본 유입 해서 성장하다가, 이자율 상승하면 외채위기 겪으면서 힘들다가, 다시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 좋아지고, 하여튼 이 두 축인데 이제 당분간 원자재 쪽에는 큰 희망은 없는 거 같고 그럼 결국 외국자본 유입을 통한 성장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조차 기대한 만큼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낮은 성장률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거든요. 아르헨티나도 좌파에서 우파 정권으로 바뀌었고, 브라질도 좌파정권이 탄핵을 당하고 친시장적 정권이 들어섰고 했는데도 생각만큼 외국자본 유입이 늘지 않는다는 말이죠. 신용등급이 나쁘긴 한데, 어쨌든 왜 생각만큼 외자유입이 안 됩니까?

**김영석:**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 외국 자본이라는 게, 형태별로는 크게 FDI 직접투자 있고 포트폴리오 투자 있고 기타투자 이렇게 구분할 텐데, 직접투자가 제일 비중이 크고요, 포트폴리오나 기타투자는 주로 은행 대출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변동성이 커요. 심한 경우는 순유출로 나타나기도 할 텐데 그걸 없다고 FDI만 놓고 보면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한하는데 최근에 준 건 맞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6-7% 감소는 했는데 절대기준으로는 절대 안 작거든요. 1700억 달러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2016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그 정도 될 겁니다.

김기현: 1671억달러...

김영석: 거의 정확하게 맞췄네요. 그 정도로 들어오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로 들어올 것 같은데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중남미 GDP 규모와 비교하면 아 또 숫자 틀릴까봐... 3-4% 정도 될 거거든요. 너무 좋았던 시절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11년-12년 정도와 비교하면 안돼요. 그때 제일 좋았던 때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그 때가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거기 때문에 그 전과 비교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김기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CEPAL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 1987억 달러예요. 2015년에 1831억 달러로 감소했어요. 2016년에 1671억 달러로 또 감소했어요. -7.8% 감소했어요. 2017년 자료는 없어서 모르겠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김형주: 감소는 하지만 레벨 자체는 높은 거죠.

김영석: 11년, 12년과 비교하면 안 되고 더 멀리 가서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겁니다. 1700억 달러가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중남미 경제규모를 따져볼 때 이 중 40% 정도가 브라질에 들어가는 걸 텐데 한 800억 달러 된단 얘기거든요. 그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는 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김기현: 잠시만 끼어들게요, 죄송합니다.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평균이 1070억 달러예요. 지금은 약 17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오히려 2010년대에 와서 늘어난 거죠. 이때는 자기들 원자재 수출 잘되고 하니

까 굳이 외국자본 유입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런데 원자재가격이 떨어지면서 외국자본 유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다보니 외국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늘어나다가 2015년부터 감소하는 게 문제예요. 정작 늘어야 될 시점에 우파정부도 들어서고 했는데.

**김영식:** 감소하는 것은 그 당시 중남미 경제가 제일 나빴을 때잖아요? 15-16년에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럴 때 외국인 투자가 좀 주는 거는 자연스럽고요 오히려 많이 줄어야 되는데 별로 안 줄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 많이 줄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조금 줄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절대 규모에서 절대 작지 않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는 건데 내용이 더 문제입니다. 어디서 줄었나를 봐야 되는데, 전부 자원개발 분야에서 줄은 거거든요. 자원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자원개발 분야 투자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줄은 거를 다른 분야에서 커버해준 겁니다. 남는 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거든요. 그쪽에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들어와서 낙폭을 줄여줬다.

**김기현:** 질문을 드릴게요. 마크리가 2015년 12월에 들어섰잖아요. 우파정부가? 그러면서 외국자본이 적극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2015년에 아르헨티나 FDI가 117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2016년에 42억 달러로 줄어요.

**김영식:**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석유회사 있잖아요, YPF, 재국유화하면서 정부가 지분 사면서 돈을 쥐야 되거든요? 돈 주면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나간 걸로 카운트돼서, 하여튼 그 재국유화 과정 관련해서 통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기수: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들어오느냐 이걸 보면 지금 중남미 상황을 볼 때 외국인 직접투자가 들어오는 걸 해석을 할 수 있단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기지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중남미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증가나 감소를 설명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자원개발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상당히 컸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자원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부분 투자가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를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투자들은 멕시코와 중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남미 쪽은 기껏해야 파라과이 정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을 겨냥하는 투자들, 트럼프노믹스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그런 영향들이 일정정도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집중되는 것은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들. 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통신 분야라든지 소비 분야라든지 내수를 겨냥한 주로 브라질에 대한 투자를 그런 식으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력부문에 대한 투자라든지 특히 또 최근에 광산부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도 내수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

남미 국가들이 90년대 이후 제2의 개방이라고 할 정도로 시장개방을 하고 있고 시장개방의 요체들이 민영화, 지분매각이라든지 PPP를 통한 민영화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브라질이 대표적으로 그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콜롬비아도 재정적자에 쪼들리다 보니까 국영기업들의 지분을 매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겨냥해서 투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김영석:** 아마도 2017년도 FDI 투자통계가 나오면 좀 더 주는 추세가 이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좀 늘었을 수도 있어요. 투자가 많이 줄지 않았고요. 투자 관련해서 문제는 자원개발 이런 쪽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생산성 증가의 여지가 크지 않잖아요.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아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브라질이나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남미 경제의 장기성장에 크게 기여할 텐데 그런 게 별로 많지 않은 게 사실은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투자를 많이 유치할 것이냐가 중남미 국가들의 정책과제 중에 하나이죠.

**김형주:**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부분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FDI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과거에 우파정부가 들어서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기업을 팔고 굉장히 큰 거래들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눈에 보일만한 거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파정부가 집권해도 지지율이 안정적이지 않고, 또 과거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공공

요금이 오르더라. 아니면 그걸 사간 스페인 미국 기업들의 주가만 오르더라. 이런 기억 때문에 선볼리 대규모 민영화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우파정부가 들어섰는데 왜 FDI가 늘지 않느냐란 질문에 대해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고, 대신 일반 기업들 입장에선 이미 들어가 있던 기업들의 생산 환경이 좋아지니까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는 거죠.

김기현: GDP 대비 외채비중이 2000년대만 해도 40% 정도 됐습니까? 중남미가? 최근 원자재수출해서 달러 많이 벌어들이고 외채 갚아서 지금은 한 10%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남미가 내채는 많지 외채는 2000년대 지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다시 돈을 빌릴 여지는 많은 것 같아요.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외국자본이 들어오면서 그걸로 인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말씀하신 여러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근본적 문제

장기적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왜 원자재 수출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김기현: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깊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봐야겠는데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가능성만 이야기하지 실제로 그 가능성이 잘 실

현되지 않잖아요. 장기적으로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발전시켜나가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여기서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중남미가 이런 원자재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저도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이해 책을 쓰면서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는데 이유는 많죠. 식민지 시대 때는 중상주의고 19세기 20세기 초반엔 신식민주의, 최근에 와선 네덜란드 병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선생님들은 왜 중남미가 원자재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형주:** 관점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원자재 의존에서 탈피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어차피 비중은 분모 분에 분자 아니겠습니까? 분모가 늘어나면 원자재 비중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중남미에서는 그 원자재를 대체할 만한 다른 산업들이 충분히 크지 못한 게 기본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부국인 노르웨이 같은 경우 과거에는 자원이 많았고 자원 의존도가 높았지만 다른 기술이라든지 제조업이 커지면서 원자재 비중은 줄어든 거죠. 다만 원자재 규모 자체는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남미도 같은 기간 동안에 원자재 외 다른 성장엔진을 발전시켜 나갔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까 김기현 교수님께서 중남미 경제의 두 축이 원자재와 외자유입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건 80년대에도 그랬고 90년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런데 한국만 보더라도 중국도 그렇고 80년대 우리의 주력 성장엔진과 90년대가 다르고 지금이 다르고 지금도 새로운 성장 엔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남미에선 그런 노력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그 노력을 누가 해야 하느냐, 우리나라 일본 같은 나라들은 워낙 정부가 이끌어가는 체제여서 당연히 정부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한중일 세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그런 역할은 기업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남미에서도 역시 기업이 그런 역할을 해야죠. 근데 많은 연구들에서 드러나듯이 중남미 기업들은 그런 글로벌 경쟁에 직접 뛰어들고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역할보다는 주어진 내수시장이 충분히 크니까 그 안에서 규제라든지 진입장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파이를 키워나가는 데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원을 갖고 있던 기업들은 자원 위주로, 서비스에서 허가권을 획득한 회사들은 통신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유통망을 장악한 회사는 유통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경제가 성장하다보니 자원의존도가 높다는 명제에서 40년 지나도록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50년 동안 벗어나지 못했죠.

**김영석:** 제안 해주신 데 문제도 있고 답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자원의 저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조의 저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원과 원조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오르면 내가 노력해야 생산이 더 되는 데 이걸 가만있어도 생산이 증가한 것처럼 늘어요. 소득이 느니까 그 소득을 가지고 소비하면 그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는 고통을 당하는 거고 최근에 중남미가 자원가격 하락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데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맞느냐 이거죠. 로또 당첨되면 불행해진다, 이래서 당첨된 로또를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은 자원의 축복을 받은 나라들이에요. 국토 면적에 비해 많은 자원을 가진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자원의 저주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생긴 소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문제, 말씀하신대로 원자재에 집중된 문제, 다변화하면 되거든요. 자원도 또는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과정을 통해 국내에서 좀 더 부가가치가 산출되게 만든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더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자원이 중남미 경제가 도약하는데 중요한 종자돈 노릇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자재 위주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맞지만 이유는 자원의 축복 때문이고, 자원의 축복은 활용의 문제다. 잘만 활용하고 다변화 하면 그런 노력만 잘 하면 중남미 경제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김기현:** 자원이 많은 게 당연히 축복이죠. 그 축복 때문에 다른 노력을 안 해서 사업 다각화도 안 되고 그래서 저주가 되어버린 거죠.

**김영석:** 다각화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부족하죠. 자원 수출 비중이 외려 더 늘었으니까. 슈퍼 사이클 기간 동안에, 부족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칠레 같은 데는 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가격 좋을 때 저축해놨다가 가격 나쁠 때 쓰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고. 칠레 정도 되는 나라는 그래도 괜찮아요. 가격 변동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췄는데, 다른 나라들이 문젠데요.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권기수: 이 얘기를 하면 중남미 전망이 막막하죠.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데. 중남미가 어떤 길을, 어떤 경제발전 모델, 산업발전 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국가가 어디인가 하고 살펴봐도 희망이 보이는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칠레가 가장 모범적인 국가라고 하지만 칠레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제조업을 포기하고 다양한 서비스업, 금융이나 유통 쪽으로도 노력 해보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칠리콘 밸리, 혁신의 허브라고 해서 노력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고. 칠레는 기껏해야 성공 사례로 얘기하는 게, 와인이나, 양식업. 이런 것들이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칠레조차도 새로운 먹거리나 가야할 방향들을 찾지 못하고 있고, 위로 올라가면 코스타리카 정도가 가능성을 보이긴 하는데 Intel이 빠져나가면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다른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국가들이 어디가 있을지 생각해보면 희망을 보이거나 낙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중남미 국가들이 자원이 많다보니까 자

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식으로 하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포스코 같은 케이스의 과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발전을 할 것인지, 답은 자원을 비교우위로 해서 발전하는 것인데, 항상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배가 고파서 뭐 좀 해보려 하면 배가 부르고 나태해지고 그런 사이클을 겪다보니까 한계가 있고. 어쨌든 중남미가 그나마 희망을 갖는 것들은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앞날은 예측할 수 없지만, 외채 비중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들. 중남미가 2000년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또 대외경제적인 펀더멘털이 상당히 개선돼서 과거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단 점에서는 희망을 볼 수 있단 생각을 하면서. 중남미가 2000년대 되면서, 제가 예전에 산업정책을 연구 한 적이 있는데, 중남미가 지원했던 모델 중 하나가 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브라질 경제를 지난번에 (부산 외대의) 김영철 교수님 발표할 때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것 중 하나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 브라질 경제를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정의할 것인가를 봤을 때 natural knowledge economy 이게 뭐냐면 natural resource economy와 knowledge economy가 혼합된 형태. 어쨌든 중남미 국가들이 자원부국이기 때문에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 그게 가능한 나라는 어느 정도 R&D나 과학기술 발전이 있는 나라들일 텐데. 제가 보는 지표 중 GDP 대비 R&D 투자를 볼 때 중남미 평균이 0.5, 0.6% 정도로 높지가 않고, 여러 면에서 앞서있다고 하는 칠레조차도 0.4% 정도 밖에 안 되고,

그 중 멕시코도 0.6% 밖에 안 되고, 브라질이 1%가 넘어갑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희망을 봤는데...

김기현: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권기수: OECD 평균이 2.5%구요, 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R&D의 역설이라 할 정도로 3.5%가 넘는데, 너무 높고요.

김영석: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투자가 정말 높잖아요? 20년 전에는 너무 낮다고 뉴스가 났는데 그 후 노력해서 그쪽 투자를 늘린 건 맞는데 옛날에는 연구원 점심 식사비까지 전에 안 잡히던 것 다 잡아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거 땀에 애먹었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올라간 숫자가 꽤 있을 거예요.

김형주: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을 어느 나라에 남기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굳이 세율이 높은 지역에 이익을 많이 남길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이익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료, R&D 비용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세율이 높은 국가에 진출한 해외 법인들이 이윤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R&D 비용 명목으로 본사에 송금하는 경우들이죠. 물론 회계 상의 테크닉이고 불법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R&D 투자 및 관련 통계가 왜곡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 덕분에 선진국들은 생산 설비 없이도 R&D 만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중남미 국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로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자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 의지가 없는 게 문제죠.

**김기현:** 원자재가 축복이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부가가치 창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중남미가 전자산업을 하겠습니까? 자동차산업을 주도적으로 하겠어요?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거든요. 아무리 R&D 투자 하더라도, 그럼 중남미가 산업발전을 한다면 결국은 원자재 기반 부가가치 높이는 쪽으로 R&D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중남미 미래라고 항상 생각했고 그렇게들 말씀하셔서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쪽 투자가 너무 낮다. 예전에 제가 한국과 중남미 경제를 비교하는 논문을 쓸 때도 중남미의 경쟁력을 한국과 비교해보니까 다른 어떤 분야보다 문제되는 게 기술혁신, R&D 부문이더라고요. 이쪽 경쟁력이 가장 낮게 나타나더라고요. 중남미의 미래가 결국은 R&D 쪽 투자다, 그래서 원자재를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리스크 테이킹 어프로치가 부족한 게 문제고, 결국은 문화적 요인까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김영식:** 그게 왜 낮을까를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높은가도, 부풀려진 면이 있을지언정 우리나라가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미국 특허전수 순위를 매겨도 우리가 항상 위에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R&D 투자는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거예요. 지식은 공짜예요. 공공재고, 내가 지식을 창출해도 남이 금방 모방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외부성 때문에, 그거 보호

하려고 특허권, 지재권 있기는 하지만 모방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시도할 때 돈 많이 들고 실패하면 보상도 못 받고, 사실 잘 안 해요. 공공재인데 잘 안하니까 누가 하나,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재는 정부 담당이니까요. 정부가 R&D에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국책연구소 정말 많습니다. 거기서 특허도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고속철 개발한다,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을 개발했어요. 그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 특허 절반은 철도기술 연구원 그런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철 만드는 회사는 현대 로템 딱 하나 밖에 없어요. 거기 들어간 투자비용 정부가 3000억 원은 썼을 거예요. 그거의 수혜자는 현대 로템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밑에 죽 이어지는 산업연관 효과. 이런 거 때문에 공공재니까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선진국은 R&D 투자에 정부 지원을 하는데 정부재정이 튼튼하니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중남미는 R&D 투자를 둘로 나눠서 민간투자, 정부투자 나누고 보면 정부투자 거의 0에 수렴할 겁니다. 민간 보고 하라고 하는데 민간은 말씀드린 대로 잘 안 해요. 남의 거 베끼는 게 훨씬 돈도 안 들기 때문에 R&D 투자가 작은 게 문제이고 늘려야 하는데 민간이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뒀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중남미 정부들이 이제는 다들 나서서 국가 차원에서 R&D 투자를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게 늘리지 못 하는 게 재정적인 제약 때문에 잘 못 늘리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정

부의 R&D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 개발 관련해서 고부가가치 경제발전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 더 있는 거 같아요. 서비스업. 중남미가 크게 보면 자원 개발이나 또는 농업. 농업분야 특히 1차 산업에도 비교우위가 있거든요. 유일하게 1차 산업이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교 우위가 있고 거기서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걸 더 늘려라. 세계 인구가 늘고, 식량안보 이런 얘기 하나니까. 앞으로 식량을 증산할 수 있는 여력에서도 중남미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업이나 자원분야에서 특화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생산성 증가를 불러올 R&D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제조업 얘기하고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자동차 생각을 하는데 그 분야는 중남미가 현재 잘 안되잖아요. 거의 외국인 투자기업한테 맡겨놓은 거니까.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생산성 증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분야에 특화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국가 경제발전 전략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권기수: 서비스업 말씀하셔가지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그것의 실체가 있냐, 없냐를 떠나 많이 논의하면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를 벌린 결정적 계기라고 얘기 되고 있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가 중남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4차 산업혁명이 중남미에 위협요인인가 기회요인인가. 통상적으로는 위협요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서 중남미가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유무선 보급률이나 증가율이 다른 개도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SNS 사용 비중이 세계 탑 수준에 중남미 국가들이 있고, 디지털 기술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화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서 산업정책은 도시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도시에 지식이 집중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혁신 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모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multilatinas 즉 중남미 다국적 기업을 얘기한 적 있는데 최근엔 더 진화해서 tecnolatinas 즉 중남미 기술 기반 활동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로 스타트업 기반, 대도시 상파울루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멕시코시티에서 태동을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르헨티나의 Mercado Libre는 중남미의 Alibaba, Amazon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태동을 하면서 아르헨티나 시장을 넘어 중남미의 히스패닉 전체 시장들을 겨냥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 중남미 지역이 동질적 특징들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예전에는 상품의 교역을 위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나라 시장이 안되면 FTA를 통해 경제통합을 시도하는데 인터넷 세상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에서도 태동하지만 이 기업들이 중남미 전체 시장을 겨냥해서 진출하는 특징들이 나타나요. 중남미가 이런 측면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중 최근에 유니콘이라고

해서 자산규모가 비상장 기업에서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니콘 기업들이 9개, 10개 이상 나올 정도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농업을 말씀하셨죠. 지금은 산업 경계가 많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중남미는 농업 강국이고 농업 분야에서 스타트업과 연계해서, 드론이나 여러 가지, 에그테크, 정밀농업이라고도 얘기하는 분야가 주목받고 있어요. 중남미 농업을 보면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하는 일부 메이저들이 경쟁을 하는 농장이 있는 반면에 중소 규모의 가정농도 꽤 많거든요. 그런 시장을 겨냥해서 정밀농업이라든지 4차 산업 농업을 겨냥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많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남미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비춰볼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중남미가 바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IDB 총재 모레노도 한국에 와서 중남미가 앞으로 살 길은 기술혁신이다 이야기를 하고 광업이나 농업에서도 충분히 기술 혁신이 가능함을 강조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야에 스스로 실질적인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자기들이 안하고 니들이 와서 그런 분야에 투자해라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김형주:** 투자를 자꾸 다른 쪽에 떠넘기는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수익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멕시코나 브라질 기업이 그 분야에 투자해서 수익 확실하다면 굳이 해외 의존 안하고 자기들이 하겠죠. 그런데 왜 수익률이 확실하지 않은가. R&D나 기술

관련된 투자에 관련해서는 그 나라 교육 수준이 낮고 인프라 열악하고 진학률도 낮고 그런 문제가 태생적으로 발생을 하는 데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돈과 재정의 문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공공재 성격의 R&D도 재정이 필요한 거고, 투자를 했을 때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돈이 필요한 거고,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결과적으로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방향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남미에서 생산에 의한 부가가치 배분의 양극화가 심하고 일부 대기업에 많이 쏠리고요, 일부 대기업이라는 게 생산보다는 내수시장이나 규제가 존재하는 쪽에 숨어들어서 부를 창출하니깐 그 문제를 중남미 국가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겠지만-그 부분을 개방하고, 즉, 지금 특정 기업들에게 허용하는 시장을 글로벌 개방한다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이 떨어질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쪽으로 쏠리던 부가 국민들에게 가거나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재정을 확충하는 쪽으로 쓰이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정부가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이 문제가 풀리지 다른 걸 가만두고 외국에 해달라고 해봤자 같은 돈을 가지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투자하는 게 R&D 성과가 좋은데 글로벌 기업들이 그 돈을 가지고 멕시코나 페루에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죠. 저는 중남미 국가들이 개방과 경쟁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김기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R&D 투자라는 게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리스크가 크잖아요. 중남미 정부가 한다 치지만 민간도 해야 되잖아요? 민간 같은 경우 특권층, 기득권층들은 굳이 리스크를 안고 R&D 투자를 하는 거 보다 말씀하신 대로 지대추구(rent seeking) 즉 정부에 로비 해서 사업 하는 게 더 이득인데 굳이 힘들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 거죠.

김영석: 중남미 사람들이 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합니다.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암울하게만 볼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진짜로 많이 하고 있어요. 사례를 여러 개 들 수 있습니다. 생략하고요. 결국 R&D 투자가 중요한데

권기수: 중남미 사람들이 인문학과 이공계 중에 어디를 선호해요? 중남미 혁신 활동이 저조한 걸 분석할 때 인상 깊게 본 게 중남미 사람들이 인문학을 더 중시하고 이공계를 경시하는 풍토가 있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기현: 교육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건데, 중남미 사람들도 그런 걸 지적하더라고요. 우수한 인재들이 오히려 이공계보다 인문계에 많이 가는 문제.

김형주: 이공계를 가더라도 전자, IT 이런 데를 안가고 기계, 건축 이런 쪽으로 가고 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R&D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좀 더 쉬운 방법이 뭐냐면 글로벌 가치사슬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도

산업을 다각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서 남미의 부가가치 참여비중이 유럽 72%, 동아시아 56%에 비해 30% 정도 밖에 안돼요.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거죠. 멕시코를 제외하고, 멕시코는 나프타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거 같은데 남미는 그게 안 되는 것도 사업 다각화가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주: 일단 중남미 입장에서는 아까 논의한 것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자원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자원을 통해 충분한 돈이 들어오면 자원으로 돈을 번 정부나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저소득층에 돈으로 주고 하면 소비가 발생하고 상당한 파급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보니 굳이 경쟁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 역시도 글로벌 경쟁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한 축에 있다면 다른 한 축은 중남미 기업에 비해서 아시아 기업들이 글로벌화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잘했다는 것도 원인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일 텐데요. 중남미 내에서 그나마 글로벌 가치사슬에 잘 편입됐다고 하는 것이 멕시코인데 실제로 멕시코와 중국의 관계를 시기별로 비교해보면 나프타 직후에는 멕시코 기업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수출도 많이 하고 했죠. 중국이 부상하면서 멕시코 내부에서의 자원배분 의사결정을 멕시코 기업이나 정부가 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겠습니까만, 미국, 일본,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안

에 공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아웃소싱을 과거에는 멕시코 내에서 하다가 중국이 좀 더 싸게 만들어내니까 조금씩 옮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보면 부품경쟁력을 갖춘 중국 쪽으로 부가가치 상당 부분이 넘어가고 멕시코 안에는 인건비, 조립이나 이런 쪽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수출을 많이 하지만 중간재 수입이 워낙 많아서 순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 기여도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중국은 잘하는데 왜 중남미는 못하느냐. 물론 중국 노동자나 기업들이 부지런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은 국가가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자원의 제약도 훨씬 적고 또 “산자이”라고 해서 좋게 말하면 혁신클러스터지만 나쁘게 말하면 지재권 안 지키고 불법카피해서 만드는 제품들을 단속을 하지 않고 놔두다 보니까 어쨌든 가격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에 비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글로벌화를 오래전부터 했고 나름 스탠다드를 지켰기 때문에 지재권 단속도 많이 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감시의 눈도 크게 뜨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남미 기업들, 중남미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꾸 중남미의 부가가치 exposure는 줄이고 아시아나 다른 쪽으로 늘리게 만드는 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와 멕시코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 비율을 비교해보면 멕시코에서 벌어들인 게 수 배 이상 높습니다. 중국에서는 매출도 많이 발생하고 규모도 크고 수출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에게 남는 게 2나 3이라면 멕시코에서는 같은 금액을 수출했을 때

10배 이상 20배 이상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거죠. 바꿔 말하면, 갑-을로 비유하자면 중남미 기업들이 을에 위치한 거고, 중국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을에 있고 중국내 부품업체나 정부나 기업들이 상당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중남미 기업들이 현재 상황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갑을관계를 역전시킬만한 key factor를 못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거기까지 기대하긴 힘든 것 같고, 다만 참여해서 수익이 적더라도 일단 거기 들어가는 것만도 지금 중남미에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마저도 참여를 못하고 있잖아요. 특히 남미 국가들은요. 모레노가 이번에 와서 한 얘기도 남미에 투자해서 유럽 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투자해라. 우리는 그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그 먼 남미까지 갈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계 주요 시장들이 북반구에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이런 주요한 시장들이 다 북반구에 있으니까 굳이 남반구까지 가서 생산할 필요가 없죠. 물류비용을 생각한다면, 남미는 이런 지리적 이유 때문이라도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배제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형주:** IDB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그럼 중남미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 입장을 똑같이 지지하고 보증해줄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멕시코도 지금은 트럼프와 부딪히면서 기업들한테 전향적으로 잘 해주고 있지만 내년 선거에서 바뀐다고 하면 지금처럼 그렇

게 기업들을 지원해줄 거냐. 반대로 멕시코에서 트럼프처럼 자국 기업 육성하겠다는 거고 글로벌 기업들을 탄압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중남미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편입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게 글로벌 투자은행들이나 국제기구의 입장인지, 아니면 각국정부도 똑같이 지지하는지는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기수: 김기현 교수님께 동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멕시코가 중국과 비교했을 때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세계 3대공장이라고 하는 북미, 동아시아, 유럽 공장에 어떻게 편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 운명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 들고요. 남미국가들 경우에는 그런데서 소외되다보니까 그쪽 사람들 만나보면 항상 귀를 쫑긋하고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고 아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TPP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 입장인지, 이런데 관심이 많거든요. 자기들은 세계의 큰 공장에서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중남미 국가 자체가 생산 기지로서의 가능성들이 있으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멕시코나, 중미 같은 경우는 미국시장, 최종 시장을 겨냥해서 편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남미 국가들은 쉽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생산기지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지 않고 대표적으로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런 기대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출가공지대 붐이 일어서 브라질도 수출가공지대 실험을 하겠다고 해서 KSP 사업을 해서 같이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논란이 수출가공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투자해서

수출을 많이 했으면, 수출비중을 80 내수비중을 20.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수출을 80 내수를 20을 해야 된다. 그런데 브라질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브라질이 전반적으로 생산, 물류비용이 높기 때문에 내수를 겨냥해서 들어가지 수출을 겨냥해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 비중을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20% 가지고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그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해서 옥신각신 했던 적이 있는데, 중남미 많은 국가들이 그런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글로벌 가치 사슬을 겨냥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우리 기업들 보면 비슷한 사례가, 상파울루 현대자동차 공장을 가동하는데 브라질 노조가 워낙 세고 몰려 있으면 더 세지니까 그중 한 자동차 부품회사가 파라과이에서 부품회사를 설립해서 파라과이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브라질에 수출하는 구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악한 수준이긴 하지만 한국 기업의 가치 사슬에 파라과이나 브라질이 편입되는 그림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그쪽 사람들은 희망을 하고, 최근에 태평양 동맹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 사슬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이 페루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칠레에서 가공을 해서, 멕시코에 수출하는 식의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그쪽에 투자해서 멕시코 시장을 겨냥해 들어갈 메리트가 없다보니까 항상 주문을 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김영석 교수님 첨언하실 게 있으신가요?

김영석: 제가 다른 데서 봤던 기억인데요. 우리가 단추를 사지는 않죠, 옷을 사면 단추가 달려있는데, 전 세계 단추의 2/3가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하거든요. 어디서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중국 저장성인가 거기라는데, 단추 박물관도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 섬유산업 중에서 거기는 단추에 특화한 거거든요. 그런데 단추 공장이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단추 전문 인력도 많고, 단추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한다는 것은 완제품의 1-100까지의 공정 중 하나만 특화해서, 단추처럼, 대규모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야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는데, 기업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기업은 자기가 만드는 제품의 1-10 공정은 한국에서 하고, 왜냐면 여기는 고속련도의 기술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 10-20까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면 비싼 한국인력 쓰지 말고 온두라스 등에 보내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은 물류비용이 싸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일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만드는 것. 그게 기업 입장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을 갖추는 거고, 한국에서 완제품이 나오면 가장 싸게,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오는 거니까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가 있어야 하는데, 중남미는 그런 노력을, 아까 말씀하신 게 마킬라도라 산업이라든가 수출가공무역지대 있었잖아요. 있긴 한데, 단추 정도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사례가 많지는 않죠.

김형주: 자동차 정도

김영석: 예. 자동차가 몇 가지 좀 있는 정도고, 왜 발전하지 못했느냐 생각을 해서 고쳐야 할 텐데요. 북미와 유럽시장이 가까운 편이에요. 거리가 멀어서 섬처럼 떨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지리적으로 가까울지는 몰라도 인프라가 나빠서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데 항구에 배 대기도 힘들고 통관절차 거쳐서 물건 빼내기도 힘드니까. 다른 나라와 물리적으로 먼 게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가 문제입니다. 인프라 시설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운영 시스템, 즉, 공항과 항만 운영 시스템, 관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개선하는 게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일을 할 기능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받은 숙련된 기능 인력이 있는냐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 주려면 그것보다 싼 데 많거든요. 그럼 더 좋은데 가서 생산하지 중남미에 오지 않죠. 따라서 그 인건비에 맞는 수준의 공정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 인력이 있어야 돼요. 받는 월급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다국적기업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받는 임금 수준을 충족할 기술 인력이 적은 거죠. 그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결국은 인프라 개선하고, 기능인력 양성하고, 정부가 신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기업이 그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지속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많이 개선된 거 같은 한데 일부 불량국가들이 여전히 중남미에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의 개선도 필요한 것 같고요.

김기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쉽지 않고, R&D 투자를 통한 원자재 부

가가치 창출도 쉽지 않고, 원자재 가격이 오를 전망도 없고,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중남미 경제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각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 한 가지씩만 해주시죠.

**김영석:** 4차 산업 혁명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산업혁명이 온 인류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 것은 명백하잖아요. “혁명” 자를 붙이려면, 정보혁명이랑 4차 산업혁명하고 구분해서 말씀하시기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보화가 인터넷 사용이 우리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킨 것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도 그 정도 수준의 뭔가를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혁명까지는 현실로 경험한 거고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올 거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좋은데, 또 5차 산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인류의 생산 능력이 늘어나니까 옛날에 100명이 일해야 될 거 1명이 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여가가 중요해진답니다. 이제는 여가 산업을 5차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틀리면 안 되는데. 기억에 의존하고 있어서, 5차 산업혁명이 있고 그런 게 생각보다 빨리 온다면 그거는 중남미가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중남미는 2차 산업분야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좀 낮은 게 산업혁명 시대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못 본 것 같고요. 그러나 3, 4, 5차 산업과 1차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기후변화, 식량난, 인구증가 이런 조건에서 중남미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미약한가요?

권기수: 4차 산업혁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중남미 경제를 비행기에 비유하는데, 동체, 즉, 대외경제가 1차 상품 붐의 성과로 전반적인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강화가 됐습니다. 아웃라이어 빼고 인플레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외채 얘기도 하셨지만 전반적 대외 여건들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중남미가 독립을 한지 200년이 됐지만 항상 선진국에 예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8, 9년 전대미문의 선진국발 금융위기에 중남미는 끄떡없었거든요. 정치적으로 독립한지 200년이 됐지만 경제적으로는 항상 종속돼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독립한 해가 2008년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할 정도였죠. 어쨌든 대외적 펀더멘털이 강화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동체가 강화돼서 튼튼하게 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마땅한 성장 동력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기존에는 1차 상품 붐이 성장 동력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 국가들이 성장 동력을 잘 찾아내야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승전생산성, 기승전혁신이 아닐까 하는데.

김형주: 중남미 국가들이 원하는 원하지 않든 세계화에 편입이 됐고 경제 성장은 경쟁의 결과기 때문에 중남미 노동자들이, 기업인들이 다른 지역의 노동자나 기업인만큼 열심히 하거나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경쟁에 뒤처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낮은 경제성장률일 텐데요. 그 숫자가 낮아졌다는 것과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는 만족과 행복과는 별개거든요. 저는 중남미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시아인의 가치관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까. 성장률이 낮다고 해서 그들이 꼭 불행한 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했던 많은 이야기들의 기본적인 열쇠를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배분, 제도, 신뢰 등 정치인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조율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득권층이 얼마나 공고하냐, 깨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최근 나타난 중남미의 여러 변화가 물론 마이너스 성장률, 혼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치엘리트들의 교체라든지 세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전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과도기를 지나고 나면 과거 기득권층들이 기득권을 잃고, 정치엘리트도 바뀌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별 경제 상황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김기현:** 중남미 경제의 이해라는 책을 권기수 교수님과 함께 쓰면서 내린 결론은 어쨌든 중남미는 영원한 가능성의 대륙이라는 것이었지요. 다음 토론 주제는 각 국가별로 핵심 쟁점들이 무엇인가인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부터 시작 할 텐데요, 일단 최근 IMF 성장 전망치가 1.7%에서 1.3%로 하향조정 되었어요. 재밌는 것은 주식시장 주가가 작년 1월 37000대에서 최근 76616으로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 권기수 교수님 말씀해주시죠.

권기수: 최근에 중남미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정치와 경제의 디커플링, 그런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 대표적으로 주가가 개선되고 있는.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76000포인트까지. 브라질이 2008년 1차 상품 붐이 일어났을 때보다 더 높은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연출되고 있나, 그게 아이러니 중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고 브라질 경제를 이해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 하나는 브라질의 경제 펀더멘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실물경제 측면에서 주춤하고 있지만 일부 지표들은 주가라든지, 다른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죠. 그 중 하나가 최근 브라질 위기가 재정위기라 해서 GDP 대비 재정적자가 8.4%, 9%, 10%까지 기록하는데 이게 정부부채의 위기 모델 중 그리스모델로 가야되는, 그리스는 그 정도 부채를 가지고 최근 위기국면으로 갔던 상황인데, 그러면 브라질은 그리스 모델로 갈 것이냐, 일본 모델로 갈 거냐 하는데, 브라질의 대부분 정부 부채를 보면 2000년대 외채를 내채화하면서 브라질의 상당 정도 정부 부채가 내채라는 거죠. 한 94%정도가 내채고 6% 정도가 외채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브라질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커지긴 하지만 문제 자체가 국내적인 문제지 외부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브라질 경제를 대외적으로 건전하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또 최근에 경상 수지가 개선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플랫으로 -0.2% 정도로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전반적

으로 경상수지 부문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3800억 달러 넘어가는 수준이고,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지요. 전반적으로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기대하지 않았는데 테메르 대통령이 잘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브라질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개혁정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테메르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려있고 지지도가 3%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보니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개혁 대통령이라는 역사적인 평가에 목말라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개혁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죠. 최근에 경제 팀이라고 하는 중앙은행 총재나 엔리키 메이엘레스 재무장관이 생각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들을 잘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경제가 현 고비만 넘기면 좋아질 수 있겠다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정치 상황과 경제 지표가 디커플링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재정수지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다른 특히 대외적 펀더멘털이 좋고 재정적자 문제도 테메르 정부가 개혁을 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이 나오고 있다. 다른 분 첨언하실 거 없으시면 멕시코로 넘어갈게요. 멕시코는 트럼프가 변수인데,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멕시코와 관련된 대선 공약들을 실현하려고 하니 멕시코 경제가 폐소화 가치도 떨어지고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트럼프가 주춤하니까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가 최근에

나프타 협상이 다시 시작되면서 또 안 좋아지는 거 같아요. 트럼프가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은데, 나프타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거기에 따라서 멕시코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전망을 해주시죠.

**김형주:** 멕시코가 트럼프 때문에 환율이 절하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수출이 굉장히 잘 났습니다. 당연히 폐소화가 싸지니까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러다보니 경제성장률도 의외로 괜찮았고 또 수출을 많이 하면 순수출은 GDP 기여도가 낮지만 그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임금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를 하고 그게 국내소비에 기여를 하죠. 트럼프 때문에 멕시코 경제가 현 시점에서 망가진 건 아니다. 예상과 달리.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멕시코에 내뱉었던 여러 독설들 중에 실제로 멕시코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건 나프타 재협상과 세제개혁 문제일 텐데요, 멕시코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세제 우대를 해줬던 걸 원상복귀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미국 내 압력이, 반발이 워낙 거세서 실현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높지 않고요. 나프타도 재협상을 하겠다고 말은 했고 진행 중인데 멕시코 뿐 아니라 캐나다,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서 원래는 올해 안에 끝내기로 했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 행정부가 신속협상권을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게 곧 만기가 되어버려서 나프타 재협상 자체가 흐지부지

해질 가능성이 있구요. 내년엔 미국 하원 중간선거가 치러지는데 중간선거가 시작되면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중요한 쟁점은 멕시코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여기서도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일부는 굉장한 공격에 나설 거고 반대쪽은 수비하려고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멕시코는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죠. 미국 전체를 놓고 보면 트럼프에 우호적인 사람보다는 적대적인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고 하원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도 트럼프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선 탄핵 이야기도 나올 만큼 트럼프 입지가 좋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나프타 재협상이 마무리 되면 모르겠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면 멕시코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안에 협상을 끝내려면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협상의 악영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프타도 그렇고 세계개혁도 그렇고 트럼프가 공언했던 것만큼 멕시코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김기현: 다른 분들도 동의하십니까?

김영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연 초에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고 나타난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부정적 영향이 있다손 치더라도 미국이란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 한 명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미국 리스크는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권기수: 미국 입장에서 4차 협상 끝난 최근의 반응을 보면 생각보다 캐나다나 멕시코가 강경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멕시코 입장에서는 PRI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은 PRI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에서 밀리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생각만큼 과격하게 나오긴 하지만 이슈에 대해 멕시코나 캐나다도 물러서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만큼 미국의 입장이 관철이 안 되면서 내년 넘어가면 장기화될 가능성,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와중에 트럼프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가 변수입니다. 그래도 실제로 절차를 밟으려면 지난하고 해서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당초보다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내년에 PAN 쪽에서 당선 되면 현상유지가 되는데, (좌파인)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집권할 경우는 여러 가지... 2002년도 (톨라가 당선된) 브라질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멕시코라는 경제 환경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그래도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주: 오히려 내년에 멕시코는 트럼프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랑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멕시코 국민들이 반발해서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찍는다면 멕시코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멕시코 기존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죠. 그건 멕시코 경제에 결코 좋은 변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마지막으로 한 나라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인데요.

마두로가 며칠 전이죠? 채무상환을 중단하고 채권단과 채무재조정을 하겠다, 올 것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디폴트, 어떻게 될까요?

**김영석:**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들어간 지 오래죠. 이미 디폴트 상태입니다. 디폴트가 기정사실화 되어있는데 디폴트는 원리금, 이자상환이 안되어야 선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이자를 냈어요. 근데 널 돈이 떨어지니까 얼마 전에 마두로 대통령이 이게 마지막 이자 지급이고 다음번 들어오는 원리금 상환부터는 널 돈 없다, 못한다, 그러니 부통령한테 지시해서 빨리 채권자들하고 채무조정 협상을 하라고 지시한 상태거든요. 그럼 디폴트가 예고되어 있잖아요. 마두로 대통령은 지금 예고했지만 시장에서는 1, 2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디폴트 상태에 있는 거죠.

**김기현:** 재밌는 게, 디폴트가 예상되면 채권 가격이 10% 정도로 떨어진대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채권이 원가의 20-30%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갖고 있고, 지금 보니까 외환보유고가 아직 100억불이 남아있어요. 내년도에 24억불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 같아요. 내년까지 디폴트 가능성 60%, 5년 안에 디폴트 가능성 99%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권기수:** 신용등급은 99% 디폴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부터 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식으로 계속 베네

수엘라 채권을 사고 투자하고 그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베네수엘라 상황이 디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계속 산 거 같아요. 왜냐면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외화 가득원이 석유기 때문이죠. 만일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석유를 담보로 해서 기존의 채권자들이 다 뺏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석유를 수출 못하게 되면 베네수엘라 현 정권은 완전히 파산하는 거다.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안 가려고 하니까 마두로가 어떤 식으로든, 파박파박 이자를 내는 거죠. 사람들이 베네수엘라의 아이러니라고 말을 했는데 마두로가 11월 2일 채무 구조조정을 하겠다, 마지막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금융권의 패닉이 왔지만, 베네수엘라가 채무를 재협상하겠다고 했는데도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형주: 방어벽이 다 쳐져 있어서.

권기수: 예. 선반영이 되어있는지 생각만큼은... 예전에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선언할 때도 초기에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상당히 불안했는데 지금은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할 때도 조용히 넘어간 경향이 있고, 베네수엘라도 생각만큼 갖고 있는 채권규모나 이런 것들, 정확하지가 않은데, 파이낸셜 타임즈에 최근 나온걸 보면 채권 규모가 660억 달러라고 얘기 하고 있고, 300억 달러에 IMF가 차관해서 한 900억 달러, 일부에선 1000억에서 1500불까지도 보는데 생각만큼 채권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일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

냐면 베네수엘라의 디폴트 파장 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외채가 채권보다는 차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차관의 상당 정도는 러시아와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일부 국가에만 제한된다. 하지만 채권은 갖고 있는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까 파장이나 영향이 커질 수가 있는데. 어느 게 정확히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블룸버그나 CNN에서 요란하게 떠드는 것에 비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입니다.

**김기현:** 베네수엘라가 디폴트를 못하는 이유가 해외자산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분석도 있어요. 디폴트하면 해외자산 다 빼앗길 수도 있니까. 그런데 이번에 마두로 정부가 채무재조정을 하려고 한 이유가 아예 그냥 채권을 20%나 30% 할인된 가격에 소련이나 중국이 그걸 사주는 걸 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장에 디폴트로 갈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채무재조정 카드를 내놓았다고 하는데 그럼 디폴트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일어나지 않을 것도 같은데.

**김영석:** 채무국 입장에서 외채관리 전략 중 하나로 과거 에콰도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자기네 디폴트 할 거라고 소문을 내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액면가 100만 원짜리가 10만원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시장에서 자기가 사요. 그래서 태워버려요. 소각하면, 그만큼 외채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유지되는 거는 아르헨티나 사례 때문에 그렇죠. 아르헨티나 때 디폴트 선언하고 스왑

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채권 스왑에 응하지 않은 벌처 펀드가 큰 돈을 벌었잖아요. 저도 지금 시장 가격 액면가 100만 원짜리 20% 정도에 살 수 있다면 5년만 기다리면... 굉장히 하이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10% 미만까지 떨어졌는데...

김기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쿠바나 아르헨티나도 짚어보고 싶고,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 경제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